



하루에 몇 번만 버스가 오가는 강원도 태백의 어느 오지 마을, 작고 허름한 교회당이 보여 아내와 들어가 기도합니다. 창호지에 가사만 적어 사용하던 지금은 거의 볼 수 없는 어린 주일학교 시절의 찬송가 껍데기가 있어 설레임으로 펼쳐 봅니다. “흰구름 뭉개뭉개 피는 하늘에 ” 여흥성경학교 교가만이 유일하게 아는 찬송이어서가 아니라 내 어린 날, 흐르는 땀으로 목덜미 주름살에 까만 때가 낀 채로 부르던 찬송이어서 그 자리서 정겹게 불렀습니다.

교회당 안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여서인지 강대상 옆으로 난 작은 문으로 아주머니 한 분이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니다. 인사와 함께 우리 부부 소개를 하자 자기가 이 교회 목사라면서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더구나 나와 같은 신학대학을 졸업한 동문 여자 목사님이어서 더욱 반가웠습니다. 지금은 이름도 잊었지만 귀한 차라면서 내 오는 차를 마시며 오랫동안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루에 버스가 4번 오가는 철쭉산중 마을에서 교인은 어른 8명, 어린이 8명... 그 중 한명이라도 주일예배에 빠지면 온통 마음이 혼란스럽다는 말씀, 예배 후 전 교인 8명이 식사할 식탁이 아예 교회당 맨 앞에 놓여있는 정겨움, 고등학교 졸업한 1명의 교인이 유일하게 배운 사람일 정도로 모두들 배움이 모자랄까라도 훗과 함께 일평생을 순박하게 살아간다는 말씀, 새벽예배를 위해 켜는 예배당의 불빛이 마을의 하루 시작을 알리는 빛이라는 자부심, 종종 교회마당으로 뱀이 나와 주일학교 아이들이 장난삼아 잡으려 하면 ‘저 살아가려는 생명인데 잡지 말라’ 고 하신다는 목사의 잔잔한 웃음, 참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 날이 어느새 짙은 어둠을 선사했습니다.

일찍 잠드는 오지 마을의 밤에 오늘따라 늦게 켜져 있는 교회당 불빛이 궁금스러운지 아이 한 명이 교회당 창문으로 들여다봅니다.

작별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목사님께서 손님을 위한 마지막 배려인양 교회당 외벽 전체를 두른 전등을 켜자 교회당의 환한 실루엣이 칠흙같이 어두운 산골에 소박하고 단아함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세상 어느 교회당의 밤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 수 있을까... 더 커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은 내 마음이 보여 질 것 같아 주위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고 교회당을 바라다 보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렇게 흙속에서 무명의 종으로 교회를 지켜가는 목사의 손 흔들어 주는 모습에 내 가슴엔 회한과 부끄러움이 가득 차 오는데 아내는 어느새 불을 타고 내리는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교회 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빌4:13)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영예
제9권 28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7년 7월 15일
☎ 369- 5077. Howe St. City(Ak Girls Grammar School Hall)		www.calvary.org.nz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기도는 당신의 눈물입니다

김대연

이 세상에
당신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알알이
꼭 차있는 석류 알처럼
눈물방울 하나하나가
그대로 굳어서

인생길이 목이 메어
눈가에 뿌옇게 이슬이 맺힐 때

내 가슴에
영롱한 진주빛으로
빛나게 하소서

아프면 아픈 대로
소리 나면
소리 나는 대로
울게 하소서

나의 눈물샘에
기쁨의 눈물
사랑의 눈물
은혜의 눈물
감사의 눈물만이 흐르게 하소서

나의 기도는
당신의 눈물입니다

내가 흘리는 눈물이
단 한 방울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눈물검도록
힘겨운 인생 길 이지만
당신이 내 곁에 있으니
살아갈만한 세상입니다

내 영혼의 우물에
그대로 고여
인생길이 외롭고 힘들 때
그 눈물로 나를
씻어주고 닦아 주소서



◀그땀 그랬지 ▶ 오리표 운동화

지금처럼 나이키, 아디다스가 나오기 전에 여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신던 신발은 오리표 운동화였습니다. 청색 천으로 만들어지고 둘레에 흰색 고무로 테가 둘러져 있었지요. 계중에는 검정색 구두를 신은 여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면 모두들 풀먹여 뽀뽀한 칼라교복에 깨끗이 빨아 신은 운동화 위로 보이던 흰 양말의 여학생들의 자태는 질풍노도같은 남학생들엔 하나같이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말씀따라 행하기▶

하나님을 위해
손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는
손해는 없다

◀인품따라 행하기▶

베품이란
많이 가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

주 일 예 배(창립기념주일)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생활을 축하하며...

- 1. 아동부 율동
- 2. 학생부 찬양

찬 송	246 장	다 같이
Hymn		
성 시 교 독	66(헌당예배)	
Response Reading		
신 앙 고 백	사 도 신 경	
Apostle's Creed		
찬 송	460 장	
Hymn		
기 도		김반석 안수집사
Pray		
성 경 봉 독	사도행전 13:1-3	인 도 자
Scripture Reading		
성 가 대 찬 양		나무심자가 성가대
Choir		
설 교	안디옥 교회 같은 갈보리교회	이태한 목사
Sermon		
찬 송	246장	다 같이
Hymn		
헌 금 기 도		인 도 자
Offering Pray		
응 답 송	여기에 모인 우리	다 같이
Response Song		
축 도		김성국 목사
Benediction		

감사와 축하

◆7월 예배위원◆

◆7월의 교회력◆

일자	기 도	응 답 송	안 내	행 사	예 배 와 모 임
01	고성일		본당:권사	1	맥추감사주일 헌신예배
08	김교섭		현관(1)박일영 최재학	8	구역예배
15	김반석		현관(2)장현중 정덕수	15	전교인체육대회 창립기념예배
22	김순자		새교우:이광희 이근평	22	당 회
29	김영길		윤주야 장유진	29	남녀선교회월례회

『교회 생활』 2007 신앙생활: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위해 5분 매일 교회위해 1분 매일 남을 위해 1분	『교회 등록』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아동,학생:오후 1시 수요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0 청년부:수요 7:00 pm

- 1.교우소식
 - *병원 중에 있는 교우위해 하루 한 번씩 기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 *김성국 목사, 안식년 후 귀국. 많은 기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 2.오늘은 우리교회 창립8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 *교회다운 모습을 갖고자 시작했던 그때였습니다. 8년의 세월을 지내오면서 무엇이 퇴색해졌는지, 무엇으로 새롭게 해야 하는지가 안식의 3개월을 보내며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 3.모임 및 회의
 - *3여성교회(40세 이하) 정기모임
<일시> 7월 20일(금) 오후 7:30분 <장소> 이수은 집사 자택
*정기당회(예고). 다음주일 예배 후 <장소> 교회사무실
- 4.다음주일예배...
 - *다음주일예배까지 학교측 사정으로 체육관에서 드리게 됩니다
오실 때 돗자리등 깔개와 추운 무릎을 덮을 수 있는 얇은 담요 등을 갖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스커트 대신 바지를 입으시는 것도 편한 방법입니다.

◀착한 시인들▶ **꾸 중** 정호승

엄마를 따라 산길을 가다가
무심코 솔잎을 한웅큼 뽑아 길에 뿌렸다.
그러자 엄마가 갑자기 화난 목소리로
호승아 하고 나를 부르더니
내 머리카락을 힘껏 잡아당겼다.
니는 누가 니 머리카락을
갑자기 뽑으면 안 아프겠나
말은 못하지만 이 소나무가 얼마나 아프겠노
앞으로는 이런 나무들도
니 몸처럼 아까듯이 해라
예, 알겠습니다
나는 난생 처음 엄마한테 꾸중을 듣고
눈물이 글썽했다.

나이가 들어가며 달라지는 것들이 하나 둘 늘어납니다. 몸의 둔해짐에 비해 빨라지는 세월의 흐름, 수줍음 많던 성격이 사람들 앞에서 뻔뻔스러워지는 능그러움.....그중 놀라운 변화는 움직이는 동물에만 흥미가 있던 관심이 이제는 꽃잎 하나, 잡초 한 포기에도 생명의 귀함이 느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어가는 개미가 밟힐까봐 발 디딤는 것이 조심스러워지는 친구 목사와의 산길행이었습다. 살아갈수록 작은 생명체에 대한 경외로움이 더해만 갑니다.